

상반기 방송 심의기준 위반 프로그램·광고 작년대비 57% 증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547건의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348건→547건) 증가한 수치이다.

의결종류별로는 법정제재 133건, 행정지도 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2.2%, 5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기 방심위 임기 종료 이후 위원선임 지연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총 463건)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주요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TV·RADIO)은 112건(법정제재 23건, 행정지도 89건)으로 전년대비 96.5%, ▲종편·보도PP채널은 76건(법정제재 1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24.6%, ▲전문편성채널은 116건(법정제재 35건, 행정지도 81건)으로 26.1%,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6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MBC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MBN(6건), SBS(5건), KBS(4건), 채널A·JTBC(각각 2건), TV조선·YTN·연합뉴스(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징계인 행정지도까지 더하면 MBC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MBN(18건), 채널A·KBS(15건), SBS(14건), JTBC(12건), YTN(5건), 연합뉴스TV(3건) 순이다. 다만, MBC 법정제재 7건 가운데 3건은 김장겸 전 사장 체제 때 방송에 대한 제재였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중징계이고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는 경징계다. 법정제재는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6점) 등이 있고 행정지도는 의견제시, 권고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방심위는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과 허위·과장방송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